

“사랑을 실천으로  
완성해보아요!”

정영은 작가



정영은 '어느 여름 좋은 날'

사랑의열매 

2023  
06

#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홈페이지 가기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위기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지원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서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복지 해소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 제로 웨이스트 나도 한번 해볼까?

6월호 <사랑의열매> '그린 열매'(14~15페이지 참고) 기사 읽으셨나요? 이번 달에는 기자들이 튜브형 액상 치약을 대체할 수 있는 고체 치약을 체험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사랑의열매>가 매달 작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린 열매'에 소개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독자 여러분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 생생한 체험기를 들려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1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mailto:cckpr@chest.or.kr)로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2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3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메일, 전화 등 편한 방식으로 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04 표지 이야기  
색에 리듬을 담아내는 정영은 작가

07 나눔 여행  
요즘 뜨는 업사이클링 공간

10 매슐랭  
자꾸 생각나는 맛있는 한잔  
카페아리 문화점

14 그린 열매  
튜브 밖으로 나온 치약

16 모두의 나눔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22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빅이슈코리아

26 내 인생의 한마디  
경기 1호 가족 아너  
한주식·공봉애·한재승·한재현 아너

30 나눔리더  
부산 최초 방계가족 나눔리더  
고모 오귀옥 씨와 조카 오동희, 조현정 씨

32 열매 소식  
2023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회의 개최

34 나눔 소식  
기쁘고 행복한 날  
나눔으로 축하해요

36 나눔인  
서울 사랑의열매 제11대 김재록 회장

37 크라우드펀딩  
나눔지역아동센터 월세 지원 사업

38 착한기업  
국내 최대 유선통신 플랫폼 (주)백메가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정영은, '어느 여름 좋은 날'  
36×36cm  
수채화

##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6월 / 통권 19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색에 리듬을 담아내는 정영은 작가

## “이야기 가득한 세상을 그려요!”

정영은 작가의 캔버스에는 형형색색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속에서 내게 속삭이는 말을 찾아보는 즐거움이란! 글강은진 사진감기남

### 사랑을 완성하는 법

정영은 작가는 말한다. 투명한 피부에 반짝이는 눈빛이 하얀 캔버스를 마주하니 더욱 말한다. 그리고 그의 작품도 말한다. 정말 말한다.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형형색색 캔버스를 채운 모든 색이 참 말한다. 주제도 소재도 분위기도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말한다. 작가와 작품이 꼭 닮았다. 말이 절로 나왔다. 작업실에서 만난 정영은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사랑의열매〉 6월호 표지를 장식한 ‘어느 여름 좋은 날’에도 바닷가에서 보낸 즐거운 순간을 작가의 말간 시선으로 담아냈다.

정영은 작가는 표지 외에도 사랑의열매 25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림을 선보였다. 농도와 채도를 달리한 경쾌한 색들 사이사이 빨간 사랑의열매

“따뜻한 사랑의 본질을 다채로운 스토리로 작품 안에 녹여내고 싶어요.”

엠블럼이 깜찍하다. 정영은 작가는 “혼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면서, “그러나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큰 힘이 되므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화합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림 속 동물들 표정도 모두 밝다. 그런데 그림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미완이다.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다. 정영은 작가는 이 지점에서 사랑을 완성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완성되지 않은 사람의 표정은 보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두며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해보면 어떨까요?”라고 따뜻하게 되물었다.

###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

〈사랑의열매〉 표지 작가로 선정돼 영광이라고 말하는 정영은 작가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혹자는 매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뛰어난

### 작가 주요 profile

- 2020 JW중외제약 Awards 입선 수상 ○ 2020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 입선 수상
- 2021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 장려상 ○ 2022 청와대 춘추관 첫 특별 전시
- 2022 정영은 개인전 〈깊은 유대감〉 / 이음갤러리
- 2023 〈그림봄길전〉 / 경춘선 숲길 갤러리 ○ 현)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



스토리텔링 능력을 자랑한다. 그렇다고 수다스럽지 않다. 얼마간 빈 공간을 만들어놓는다. 그리고 공간적·스토리적 여백은 오롯이 감상자의 상상으로 채워진다. 작품 속 캐릭터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감상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상하게 한다. 청각장애가 있는 정영은 작가는 “유년 시절 어머니가 직접 옷과 장난감 인형을 만들어주셨다”면서, “그때 가지고 놀던 것들의 부드럽고 따뜻했던 기억이 내 삶을 지탱해준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말했다.

작가에게 남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조각조각 오밀조밀 이야기로 이어져 색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 오늘도 고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정영은 작가. 그의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

사랑의 열매 25주년 축하 메시지를 담은 정영은 작가의 '우리는 모두 하나'



## 요즘 뜨는 업사이클링 공간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이다. 버려진 공간의 재발견!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역설하며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각기관



###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군사시설 평화문화진지

도봉구에 위치한 평화문화진지는 전무후무한 군사시설을 재단장해 큰 화제를 모은 곳이다. 1968년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북한 무장간첩단, 일명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층의 방호시설 위 2~4층은 군인아파트로 사용하면서 유사시엔 건물을 무너뜨려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1970년 건립한 건물이다. 이후 건물 노후화로 2003년 아파트는 철거되고, 2016년 서울시와 도봉구청, 60보병사단의 재단장 협약을 통해 예술 창작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곳곳에 남은 끊긴 계단이나 벽, 보, 소총 거치대, 소총수 번호 등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평화광장에는 독일에서 직접 기증받은 베를린장벽 3개도 전시돼 있다. 평화문화진지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국립창포원이, 북쪽에는 동북권 체육공원이 바로 붙어 있어 나들이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다.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 ☎ 02-3494-1970 ⌚ 09:00~18:00(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국내 최초 폐소각장 문화시설**  
**부천아트벙커B39**

부천아트벙커B39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던 쓰레기 소각장이었다. 일반 대중에게 '다이옥신 파동'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주민들의 환경 운동으로 2010년 폐쇄되었다. 이후 용도를 잃고 4년간 방치된 소각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 재생 지원의 일부인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아트벙커B39는 단순히 소각장 뼈대만 남기거나, 이곳이 소각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소각장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저장 공간과 재처리 공간 등을 그대로 보존하며 폐소각장의 역사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소각장의 생생한 공간들이 현대 문화와 예술을 만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 032-321-3901 🕒 10:00~17:00(월요일·공휴일 휴관)



**시민에게 개방한 폐수처리장**  
**고색뉴지엄**

원래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이었다. 수원시 산업 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 기업들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예상과 달리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전자·IT 등 첨단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면서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10여 년간 방치해왔다. 뉴지엄이란 '뉴(new)'와 '뮤지엄(museum)'의 합성어로 리모델링을 통해 2017년 복합 전시 문화 공간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비로소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지하 1층 전시실은 옛 폐수처리장의 콘크리트 벽과 폐수 처리 시설, 약품 탱크 등을 그대로 보존해놓아 산업 시설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난다. 복도는 배관이 계속 이어져 있어 공장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따로 없다. 근처에는 아름답기로 입소문 자자한 산책로 황구지천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고색동) ☎ 031-228-3442  
🕒 10:00~18:00(일요일·공휴일, 설·추석, 1월 1일 휴관)



**미술관이 된 우체국**  
**탈영역우정국**

탈영역우정국은 '창전동 우체국'이라 부르던 50년 된 우체국 건물이다. 지난 2015년 서울 우체국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이후 리니어컬렉티브 김선형 대표에 의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탈영역우정국은 현재 전시, 공연, 워크숍, 상영, 강연, 토크 등을 통해 미술계뿐 아니라 디자인, 실험 예술, 전통 예술, 미디어 아트, 페미니즘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의 장으로서 실천적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정국은 우체국(post-office)의 옛말이며, 'post'의 다른 뜻인 '이후의', '탈'장르와 영역,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탈영역우정국'이라 이름 지었다. 🍀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0길 42 ☎ 02-336-8553  
🕒 9:00~19:00(토요일 휴관)





## 카페아리 문화점

# 자꾸 생각나는 맛있는 한잔

경남 사랑의열매 1,000번째 착한가게이자 전국 최초 시니어 카페! 오직 맛으로 승부하며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창원시 카페아리 문화점이다. 글강은진 사진서법세



### 전국 최초 시니어 카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카페아리’를 찾아가는 길,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제법 경사진 오르막을 한참 올라야 했고,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카페 앞에 노인복지관이 있었지만 일반 카페 상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웬걸! 평일 오후였음에도 카페 안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포장 구매가 아니라면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오가는 손님들도 인상적이었다.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근처 직장인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누군가 시니어 카페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느 카페와 다른 점이 없었다. 과연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카페이자 최고의 성공 모델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처음부터 잘된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는 자판기 커피가 일반적이었고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라테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았고, 한 잔 1,500원 하는 아메리카노 커피값이 비싸다며 깜짝 놀라곤 했죠.(웃음)”

마산시니어클럽 카페아리 담당자이자 사회복지사 박효인 팀장은 “지금은 커피값이 싸서 인기”라고 말했다. 카페아리는 2007년 개점 당시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고 1,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품질을 의심해선 곤란하다. 카페아리에서 사용하는 원두를 비롯해 모든 재료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마산시니어클럽이 직접 구매하기 때문이다. 박효인 팀장은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면서, “카페아리는 단순히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카페아리 문화점에서 근무하는 (왼쪽부터)김신희, 송근자, 배덕선 어르신 바리스타



## 성공 물고든 경남 사랑의열매

앞서 말한 것처럼 카페아리는 전국 최초의 시니어 카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시장형 카페다. 여기서 시장형이란 말 그대로 시장 경쟁을 통해 추가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발되며 시작했다. 시니어 카페지만 일반 카페가 경쟁 상대인 셈이다. 그러나 카페아리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복지관 한편의 넋 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자리도 협소한 데다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생소한 때라 어르신들의 지원도 저조했고, 고객은 고객대로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를 낫설어해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주 고객인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춰 쌍화차·생강차·대추차 같은 메뉴를 추가하고, 또 인근 여고·여중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해서 에이드 종류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박효인 팀장은 카페아리의 메뉴는 오랜 기간 동안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넋 평 공간은 한계가 있었다. 그때 나서서 도움을 준 곳이 경남 사랑의열매였다. 2017년 카페아리 문화점은 경남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금의 매장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이는 고객층의 다양화는 물론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착한가게라는 선순환으로 되돌아오는 계기도 되었다. 2018년 카페아리 문화점은 경남 사랑의열매 1000호 착한가게로 가입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카페아리 마산소방서점이 추가로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성공 모델을 넘어 나눔 모델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경남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카페아리 문화점은 지금의 매장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만드는 내 모습에 절로 행복을 느껴요. 손님이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해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 카페아리 문화점 어르신 바리스타 김신희



1 카페아리 문화점 매장 전경  
2 지속적인 음료와 베이커리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아리

“문화점 성공을 시작으로 현재 창원시 내 카페아리가 1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만 170여 명에 이르르고요, 한 평 카페 시절을 떠올리면 엄청난 성장이지요, 그래서인지 카페아리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늘 사랑의열매라면 너무 고마워하세요.” 착한가게 가입은 카페아리 전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결과라고 박효인 팀장은 말했다.

## 오직 맛으로 승부!

카페아리는 커피 맛은 기본이고, 소문난 대표 메뉴는 물론 특별 메뉴까지 인기 있는 음료가 많다. 우유와 연유를 섞은 우연라테, 패션프루츠청과 자몽 시럽의 조화가 절묘한 핫살 에이드, 스타벅스와 협업을 통해 단독 레시피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썬곡물라테가 대표적이다. 카페아리에 서만 맛볼 수 있는 유자라테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박효인 팀장은 목소리를 높인다. “손님이 유자차를 주문하셨는데, 어르신 바리스타께서 실수로 물이 아닌 우유를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예 단독 메뉴로 출시했지요. 아마 유자라테는 카페아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음료일걸요!”

카페아리의 성공은 어르신 바리스타의 열의도 한몫했다. 카페아리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 100세라도 본인만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다면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어 지원 대기자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뿐 아니라 철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은 후 시험과 면접에 통과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커피 품질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시험을 치르고 있기에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는 직업적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장이라고 결코 나이를 핑계 삼는 법이 없다. 오직 맛과 서비스로 승부한다. 그래서인지 카페아리 문화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인기가 높다. 창원시의 웬만한 행사장에는 카페아리 커피 부스가 있을 정도다. 오늘도 맛있는 한 잔을 만들고 있는 정말 착한가게, 카페아리다. ☘



# 튜브 밖으로 나온 치약

# 짜지 말고 꼭꼭 씹으세요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체 치약이 주목받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튜브형 액상  
치약에 익숙해진 우리가 고체 치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안고 고체 치약을 입에 넣어 꼭꼭 씹었다.

글 이선희 제품 사진 닥터노아, (주)브라스코퍼레이션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치약튜브

치약튜브는 여러 성분이 혼합된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없기에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치약 튜브의  
개수가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고체 치약이다. 플라스틱 포장 대신  
유리병 등 다회 용기에 담겨 있거나,  
분리배출이 가능하거나, 생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 게다가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글액 대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 화학 성분은 빼고 천연 성분만 썩

얼핏 보선 알약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기존 페이스트 치약에 익숙해진  
소비자라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일반 액상 치약은 수분을 함유해 세균  
증식과 제형 변형을 막기 위해 합성  
보존제,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을  
첨가한다. 치약을 적당량 사용하고 양치  
후 입을 충분히 헹구라는 이유도 이 같은  
성분이 몸에 남으면 좋지 않기 때문. 이에  
비해 고체 치약은 물을 사용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

## 고체 치약 이렇게 사용하세요

- 1 고체 치약 한 알을 입에 넣고 가루가  
되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꼭꼭 씹는다.
- 2 가루가 완전히 녹은 후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글 또는 칫솔질을 시작한다.  
(이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세 미만 사용 주의)
- 3 2~3분 정도 입안 구석구석 칫솔질을  
한 후 물로 헹군다. ❄️

## 구강상태에 맞는 치약 고르는 법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구입 시 제품의 용  
기·포장에서 '의약품'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목적(효능·효과), 사용 방법  
(용법·용량),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개인별 치아 상  
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 성분(주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구강 상태	권장 유효 성분
충치가 잘 발생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치은염, 치주염 예방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치태 제거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치석 침착 예방	피로인산나트륨

## 기자들의 고체 치약 생생 체험기



### 동25감 이오오리지널 고체 치약 50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가격** 1만 2,500원 **포장** 유리병(다회 사용  
가능) **특징** 천연 계면활성제, 알레르기 프리, 유효 성분 및 기타 첨가제  
전 성분 EWG 그린 등급 획득

○ **K 기자** 씹었을 때 거품이 비교적 풍성하게 나고, 거품 밀도도 높은 편  
이라 헹굴 때 편했다. 제형이 다소 단단한 편이라 처음 씹을 때 힘을 줘야  
하는 게 조금은 불편했다. 하지만 양치 후 개운함이 오래 남아 식사 후  
양치질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된다.

○ **B 기자**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도 좋아서 만족. 화한 민트로 개운한 느낌이며, 입안  
의 텅텅함을 잘 잡아준다. 사용 후 느낌이 기존 튜브형 치약과 비슷해 고체 치약을 처  
음 접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닥터노아 오비츠 자일리톨 고체 치약 30정 프레쉬민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가격** 5,900원 **포장** 생분해 패키  
지 **특징** 천연 계면활성제, 핀란드산 자일리톨 첨가, 치과 의사  
가 만든 제품



○ **K 기자** 씹었을 때 알갱이가 멍치지 않고 잘 부서져서 좋았  
다. 하지만 거품이 다소 적은 편이라 아쉽지만 세정력은 좋다는 인상을 받았다. 화한  
느낌은 약하지만, 은은한 민트 향이 제법 오랜 시간 지속돼 외부에서 가글용으로 사  
용해도 좋을 듯.

○ **B 기자** 거품이 적고 민트의 화한 느낌도 적었지만, 의외로 개운함이 오래가서 놀  
랐다. 자일리톨이 첨가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 생각한다. 양치질  
할 때도 좋지만, 입안이 텅텅할 때마다 가글용으로 사용하면 구강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이번 호부터 '그린 열매' 칼럼에 나온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독자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페이지에 있는 '그린 열매 플러스'를 참고해 주세요.



#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오늘날, 지역 경제성장과 사회 및 환경까지 두루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나눔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순그림



##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 개선 관계 맺기 사업 띵동! 소리 e-음



1,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찾는 안과와 복지관에 설치한 스마트 음향 신호기 3 설치한 스마트 음향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중인 모습



▶ 향상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일반 음향 신호기에서 교통 약자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시각장애인 스마트 음향 신호기로 발전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이 한층 안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은 아직까지 일부 장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인천 지역 내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시설(편의점, 식당, 카페, 약국 등) 40곳에 스마트 음향 신호기를 설치했다. 자동 알림 서비스로 시각장애인이 상점 입구나 상호를 쉽게 찾는 것은 물론, 자신의 위치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에도 크게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MINI INTERVIEW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전영훈 사회복지사**

Q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 지원 사업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띵동! 소리 e-음'은 시각장애인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Q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은 나눔과꿈 지원의 선한 영향력 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아동놀이환경과아동놀 권리보장을 위한놀이공간 조성사업 맘(mom)편한 놀이터



▶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은 맘껏 놀 수 있는 장소조차 찾기 힘들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미달된 전국 1,581개 놀이 시설이 폐쇄 조치되었으며(2015년 4월 16일 기준), 그중 영구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 놀이터는 예산 부족으로 개보수가 어려워 결국 방치된 실정이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롯데그룹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2017년부터 낙후되고 방치된 놀이터를 새롭게 바꿔주거나, 놀이터가 없는 공간에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24개 놀이터를 만들었다(2023년 5월 기준). 단순히 놀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과 보호자가 설계·디자인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설계·시공 후엔 확인 및 점검, 사후 평가도 하며 놀이터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맘(mom)편한 놀이터 조성 과정에 참여한 아동 디자인단

“완성한 놀이터를 보고 ‘여기서 100번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터는 당연히 어른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아이디어를 더하니까 어린이가 놀기 좋은 놀이터가 됐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니까 평범한 놀이터가 특별한 놀이터로 변했어요.”



1 맘(mom)편한 놀이터 12호점 경기도 오산시 원동어린이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 2 대구광역시 동신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당시 아동 디자인단에서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 3 맘(mom)편한 놀이터 1호점 부산광역시 새들원 전경 4 열다섯 번째로 문을 연 경기도 시흥시 큰술공원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가들이 아이들과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 MINI INTERVIEW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2지역본부 박유진 과장

- Q **사업 진행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동과 이용자의 접근성, 그리고 안전입니다. 아동은 놀이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자 놀이터를 이용할 주인입니다. 해당 지역 초등학교 아동 디자인단을 운영해 함께 디자인하고 놀이터 구조를 구성한 후 이를 토대로 놀이 시설을 만듭니다. 처음 놀이터가 자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동이 직접 만지고 접촉하는 곳기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이용할 때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조성합니다.
- Q **주 이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아동이 재밌고 신나게 이용할 수 없다면 성공적인 놀이터라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맘(mom)편한 놀이터는 모든 과정마다 아동과 함께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요?** 맘(mom)편한 놀이터 8호점 남원 놀푸른어린이집입니다. 장애 아동 전문 보육 시설로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지만, 기존 놀이 시설에서는 다 함께 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는 차별과 장애물이 없는 통합 놀이터로 장애 아동도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놀푸른어린이집의 아동만 이용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남원 지역 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개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범국민 플로깅 캠페인

## 안녕! 산해진미 함께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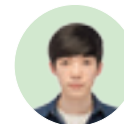


▶ 파리기후협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등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이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SK이노베이션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은 범국민 플로깅 캠페인 ‘안녕! 산해진미 함께할게’를 진행 중이다. 시민이 플로깅(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와 영어의 달리기를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봉사 활동이 인증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6만여 명이 플로깅에 참여했고, 총 120만 2,744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로깅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1 자원봉사자에게 전달된 플로깅 활동 물품들(쓰레기봉투와 집게) 2 다 함께 플로깅 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3 굳이 달리지 않더라도 가볍게 산책하면서 플로깅 활동이 가능하다.



### MINI INTERVIEW



####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안혁빈 대리

- Q **지난해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준다면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감수성과 행동은 평균 18%,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유관 활동 참여율은 각각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이터플로깅 웹앱 누적 데이터 조사 결과,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총 3,000억 mg 분량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을 방지했고, 약 77만 개 도시빗물받이를 정화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Q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활동 중 플로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취미 또는 자원봉사 활동과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깅이 아니더라도 등산, 캠핑, 반려견 산책, 취약 계층 나들이, 자율방범대 활동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가볍게 접근하고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익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랐기에 플로깅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입니다. 전국 245개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해당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365자원봉사포털과 자원봉사센터가 생소한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챗인저스 등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한편, 플로깅과 관련한 정보(활동 방법, 추천 코스, 인터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Q **SK이노베이션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지원,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재난, 사회적 연결망 해체 등)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형태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빅이슈코리아

##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주거란 재산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따라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는 말한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거리와 지하철역 등에서 만날 수 있는 <빅이슈> 판매원

빅판의 자립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빅이슈>를 홍보하고 있는 빅동 학생들. 빅동이란 <빅이슈> 판매 도우미로, 누구나 재능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거리에서 다시 일어서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거리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양손에 잡지책 한 권 들고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잡지 <빅이슈>입니다!”, “한 권에 7,000원!”, “<빅이슈>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등 저마다 준비한 한마디씩을 외치는 사람들, 바로 대중문화 잡지 <빅이슈> 판매원(이하 빅판, 빅이슈코리아는 이들을 빅판이라고 부른다)이다. 이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흔히 노숙인이라 이르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빅판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빅이슈>는 주거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는 잡지로, 1991년 영국에서 시작해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호주 등 6개국에서 총 8종이 발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이하 빅이슈)는 2010년 7월에 창립해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주거 취약 계층과 함께해왔다. 잡지를 만들어 주거 취약 계층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판매 권한을 주거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 빅이슈는 빅판에게 정가 7,000원의 잡지를 3,500원에 제공해 수익의 50%를 가져가도록 한다. 빅판은 한 권당 3,500원의 수입을 얻게 되며, 이는 자립 기반이 될 장담이 된다. 다양한 이유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빅이슈>라는 잡지를 들고 거리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중이다. 그 도전에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동행했다.

### 홀리스 범위 재정비

의식주 중 주거는 일반인에게도 평생의 목표로 여길 만큼 고비용이다. 3,500원의 수익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빅이슈는 북미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까지 입증된 ‘선주거 지원(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다.



빅이슈코리아 판매팀 김다정 선임(왼쪽)과 빅판으로 잡지를 판매하고 있는 정영수(가명) 씨

선주거 지원이란 말 그대로 주거 취약 계층에 먼저 집을 주고, 후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것이다. 빅이슈는 2020년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선주거 지원 제도 철학과 정책을 벤치마킹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약 10개월간 자활장려주거비를 지원해 참여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및 유지, 재노숙 방지 등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빅이슈는 나눔과꿈 사업에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서포티브 하우징(supportive housing)’ 서비스에 나섰다. 바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유지 및 자활 장려를 위한 주거비 및 자립 지원’ 사업이다. 서포티브 하우징이란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안정화하는 제도로, 무엇보다 노숙인으로 통칭하는 홀리스 범위를 재정비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거리 노숙인’ 대상이 되지 않던 성인 경계선 장애인과 여성 홀리스군으로 대상층을 확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쪽방 주민이나 PC방·찜질방·여관·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적(non-static) 거주민까지 포함했다.

### 높이 평가받은 자립 포용성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빅이슈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유지 및 자활 장려를 위한 주거비 및 자립 지원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빅판 일거리 서비스를 기본으로 4개월간 20만 원씩 지급하는 자활장려주거비 또한 월 10일(주 5일 근무 기준) 이상 일했을 때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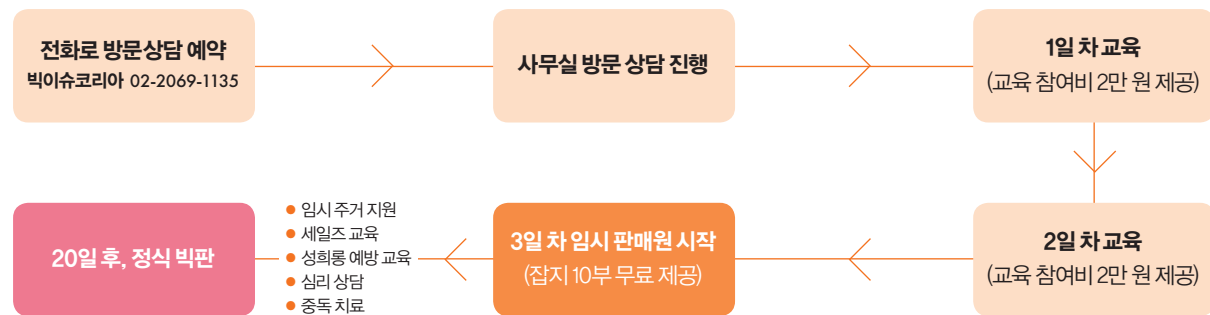


정가의 50%를 빅판이 수익으로 가져가지만, 임대주택 보증금 100여 만 원을 마련하는데 평균 1년 이상이 걸려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생활 습관 코칭과 의료 및 심리 정서 치료 등 서비스와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도왔다. 빅이슈는 무엇보다 자립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말한다. 스스로 일어서기가 더디거나 실패를 거듭해도 자립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이슈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자립 과정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성과로도 입증된다. 3년간 모두 200여 명의 주거 취약 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많은 이가 주택 보증금 마련, 임대주택 입주, 신용 회복, 주민등록 발급, 재취업 등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누구도 노숙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길, <빅이슈> 한 권에서 시작된다. 한편 빅판은 자립 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이라면 나이, 학력, 자본금,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다만 거리 잡지 판매의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빅판이 될 수 없으며, 조현병·공황장애 등으로 판매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활동하지 못한다.

### <빅이슈> 판매원 등록 절차



## “<빅이슈> 판매원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주세요!”

빅이슈코리아 판매팀 김다정 선임

### 나눔과꿈 지원배경이 궁금하다.

어쨌든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방세를 내려면 책이 팔려야 한다.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에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발생해 판매율은 급감했고, 빅판 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장사가 안 되니 포기하는 거다. 빅판 선생님들의 자립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나눔과꿈 지원으로 빅판 선생님들의 판매 수익금 외 긴급 주거 지원비를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

###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

코로나19 기간에도 빅판 선생님의 자립 의지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빅판 선생님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데다 대면 판매가 기본인데,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정말 큰 위기였다. 책이 잘 팔리지 않아도 나가서 일을 하면 주거 지원비가 보장된다는 생각에 주저않고 성실히 자립 의지를 다져갔다.

### 판매업이니만큼 개인차가 클 것 같다.

잡지이니만큼 이슈에 따라 호별로 편차가 있지만, 잘하는 분은 많이 파시고, 어려워하는 분은 몇 권 팔기도 힘들다 배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판매량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장사 특성상 많이 판 날이면 빅판 선생님들 표정부터 다르다. 웃음꽃이 활짝이다.

### 자립에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궁금하다.

정확한 목표가 있는 분들이다. 빅판 활동 시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묻는데, 막연히 “그냥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보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도 좋은 편이다.

### 사랑의열매를 통해 만나는 예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리에서 빅판 선생님을 본다면 책을 사지 않아도 좋으니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눈인사라도 부탁드리고 싶다. 눈을 피하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상처를 받는다. 주거 취약 계층, 흔히 노숙자라고 하는 말이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빅판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나가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안다. 여러분의 인사가 이분들에게 정말 큰 응원이다. 물론 책도 사주는 게 가장 좋다! 🍀



경기1호 가족 아너 한주식·공봉애·한재승·한재현 아너



나눔 동반자인 한주식·공봉애 부부  
아너의 모습. 공봉애 아너는  
“남편을 비롯해 저마다의 철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너 회원들에게서  
감동을 받는다”고 전하며, 아너  
회원들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다.

## “현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해법, 나눔에 있습니다”

경기79호 아너인 자산그룹 한주식 회장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3기(버리기·줄이기·나누기) 전략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즐기며, 이웃과 나누며 사는 멋진 인생이다. 글 강보라 사진 이승재

나눔에 그랜드슬램이 있다면 이를 달성한 1호 인물로 자산그룹의 한주식 회장을 꼽아야 할 것 같다. 한주식 회장은 경기 1호 가족 아너 가입부터 착한일터, 나눔명문기업에 이어 경기도 최초의 기부자맞춤기금인 ‘자산 디딤돌기금’ 설립까지 사랑의열매의 모든 나눔 프로그램과 함께했다. 다양한 나눔 씨앗으로 이웃의 행복을 수확하고 싶다는 한주식 회장의 바람이 그간의 나눔 행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십일조기부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한주식 회장이 설립한 자산그룹은 물류센터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지닌 기업이다. 연 매출 5,000억 원으로 연간 순이익만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알토란 같은 재정 상태를 자랑하지만, 전 재산 사회 환원 약속과 무(無)상속 선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나누는 삶으로 자신만의 십일

조 기부 철학을 실천 중인 한주식 회장은 현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무교이지만, 십일조를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승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기부는 현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년 뒤에 대통령 출마 계획이 있다”는 농담 역시 현생의 천국 건설을 위한 의지로 읽힌다.

“50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지지자를 모아야겠죠? 저의 선거 전략은 나눔과 기부,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저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요?(웃음)”



## 남을 위해 돈 쓸 줄 아는 진정한 부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에 대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주식 회장은 이런 자본주의 논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웃돈을 주고 구입해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역대 나눔 플렉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당시 500원 하던 마스크를 5,000원 주고 구입했죠. 필요한 곳은 많은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도 받을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거든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주식 회장은 각종 사회 이슈에도 발 빠르게 대처한다.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던 당시에는 개인 자격으로 요소수를 대량 수입해 소방차와 재난 구호 관련 공공 차량을 위해 공공 기관에 무상으

로 지원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이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같은 해외 이슈 지원에도 열심이다.

“돈의 가치는 쓰이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1억 원은 크게 소용없는 돈이지만, 굶주리고 아픈 곳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돈의 가치를 높이면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부처를 찾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돈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면 기부만큼 현명한 소비도 없다. 적은 돈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부의 매력이고,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나눔의 길이다.

##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지산의 나눔 정신

‘걸림돌을 디딤돌로’는 지산그룹의 철학이며,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외치는 구호다. 이 구호는 한주식 회장이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 앓은 장티푸스로 청력의 상당 부분을 잃은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혼자 생각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난청이라는 걸림돌이 오히려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디딤돌로 작용했다고 믿는, 그야말로 긍정왕이다. 이처럼 개인적 어려움을 딛고 큰 성장을 이뤘기에 우리 사회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강하다. 한주식 회장은 선행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독려하는 입장이다. ‘기부의 나비효과’를 꿈꾸기 때문.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개인의 선행이 일파만파로 퍼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의 나눔은 크고

작은 변화를 몰고 왔다. 경기 1호 가족 아너 가입 이후 지산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착한일터에 가입한 것이다. 나눔에 뜻을 모은 임직원 200명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매월 200만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지산그룹 임직원이 나눔 행보의 든든한 동행자로 나선 것이다. 한주식 회장 역시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화답하며 나눔의 명가를 완성했다. 이후 ‘지산’이라는 이름 안에서 밀고 당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이다. 지산그룹에서 나눔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집밥 같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을 확장하며 통 큰 기부를 이어가는 지산그룹의 사업 비결을 궁급해하는 사람이 많다. 한주식 회장은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에 채운다고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벌어서 이웃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죠. 기부와 사업은 생각보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 가족과 함께하는 기부의 신세계

혁신적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물류 건설에 큰 획을 그은 한주식 회장은 기부에도 남다른 발상을 가지고 있다. 공봉애(아내)·한재승(아들)·한재현(딸) 아너 외에 향후에 만나게 될 미래 가족을 아너로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미혼 아너는 배우자를 맞이할 것이고, 미래 사위, 미래 며느리, 미래 손주까지 미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선기부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현재는 사랑의열매에 미래 가족 아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기부자맞춤기금인 ‘지산 디딤돌기금’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주식 회장이 제안한 미래 가족 기부는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기부하는 가족도 즐겁고, 나중에 만날 미래 가족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일이다. 한주식 회장은 나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전문답으로 큰 깨달음을 준다.

“산토끼를 잡아서 끓여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놓아줘서 짹짹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의 질문에 “처음에는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놓아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한주식 회장은 “그게 바로 기부”라고 말한다.

“토끼를 잡아먹으면 당장 한 끼는 배부르겠지만, 먹지 않고 놓아준 토끼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짹 짹 찾고, 새끼도 낳겠죠. 기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 끼 식사로 소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주식 회장이 조성한 나눔 동산에는 이웃들과 힘차게 뛰어노는 산토끼가 가득하다. 현생의 천국에서 미래 가족을 기다리는 그의 얼굴은 오늘도 기대와 설렘으로 환하게 빛난다. 기부 덕분에 매일이 즐거운 천국이다. 🍅

이들 한재승 아너에게 나눔은 집밥 같은 일상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결정한 일 역시 나눔이었다.

한주식 회장은 ‘널리 심어라(周植)’는 뜻의 이름처럼 나눔으로 “이로움을 두루 심는다”고 말한다.





나눔도 이제 이모, 고모, 삼촌, 조카들과 함께!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 모임 ‘오최정조’를 아시나요?”

부산 최초로 나눔리더에 동반 가입한 방계가족이 탄생했다.  
가족 모임 대표 오귀옥 씨와 조카 오동희, 조현정 씨다. 글강은진 사진사랑의열매



(왼쪽부터) 가족 나눔리더에 동반 가입한 조현정, 오귀옥, 오동희 씨

### 부산 최초, 가족모임동반 가입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 등 직계가족의 동반 기부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하다. 그러나 형제자매, 이모, 고모 그리고 삼촌과 조카들까지 방계가족이 함께 기부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여기 멋지게 그 일을 해낸 집안사람들이 있다. 바로 ‘오최정조’ 가족 모임 대표 오귀옥 씨와 조카 오동희, 조현정 씨다. 지난 3월 세 사람은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직계가 아닌 방계가족의 동반 가입은 부산에서는 최초다. ‘오최정조’란 성이 오씨인 2남 4녀를 중심으로 배우자 가족의 ‘최’, ‘정’, ‘조’ 성씨를 합한 말로, 총 13가구의 가족이 ‘오최정조’라는 가족 모임 아래 40년 넘게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며 돈독하게 지내왔다. 이들 집안 모임에 나눔의 신호탄을 쏜 건 ‘오최정조’ 초대 회장이자 현재는 자신을 명예회장이라 칭하는 막내 오귀옥 씨였다. 은퇴 후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그의 오랜 소망이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은퇴 후 고향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거였어요. 직접 해보니 정말 기쁘더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벅찬 마음을 우리 가족들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2021년 10월에 나눔리더에 가입한 오귀옥 씨는 이후 ‘오최정조’에 나눔리더를 알렸다.

### 나눔 권하는 집안사람들

오귀옥 씨의 기부 권유를 받은 가족들은 실천으로 화답했다. 2022년 6월, 경남 밀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귀옥 씨의 조카 오동현 씨가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하고, 그 뒤를 이어 조카 오동

“직접 기부해보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니까 혼자 했을 때 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 씨와 조현정 씨가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이다. 조카 오동희 씨는 “고모는 어릴 적부터 배울 게 많은 분이였다”면서, “이웃을 돕는 고모를 닮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정 씨 역시 “나눔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모와 사촌 언니 덕에 좋은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눔을 꾸준히 할 것을 다짐했다. ‘오최정조’ 나눔리더 1호인 오귀옥 씨는 조카들 마음이 고마워 추가 기부를 통해 다시 나눔에 동참했다. ‘오최정조’ 가족 단체 카톡방에는 서로의 선행을 축하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는 글이 가득했다. 이보다 더 따뜻한, 아니 뜨거운 집안사람들이 있을까.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나눔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니까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나눔은 우리 이웃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묶어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오귀옥 씨는 다른 가족들도 이 기쁨을 꼭 느껴보길 권했다. 왠지 ‘오최정조’의 나눔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



2023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회의 개최

# “어려운 때일수록 아너 회원들이 나눔의 뜻을 모아야”

지난 5월 11일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3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회의(이하 아너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나눔문화 확산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 방안까지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진 그날의 현장을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 한자리에 모인 아너 대표들

각 지역의 아너 회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이하 아너 대표)들이 지난 5월 11일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 모였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8개 지회의 아너 대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 동안 함께했다. 이날 최신원 아너 총대표를 비롯한 전국 아너 대표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직원들까지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아너 대표회의에 들어가기 전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친 아너 클럽을 시상했다. 올해 최우수 지회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우수 지회에는 부산과 울산 사랑의열매가 수상했다. 또 아너 소사이어티 발전 공헌을 인정받아 충북과 세종 사랑의열매가 공헌패를 받았다.



2023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회의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왼쪽 다섯 번째), 최신원 아너 총대표(왼쪽 여섯 번째)와 각 지역 아너 대표들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지회 우수 사례 발표에는 부산 정성우 아너 대표와 충북 이태희 아너 대표가 나섰다. 두 사람은 아너 대표의 적극적 자세가 아너 회원 증대 및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며 각 지회 아너 대표들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2023 아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너 대표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 활성화, 지역 기반 회원 개발 강화, 한국형 기부자맞춤금 활성화 등 향후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다양한 사안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아너 대표회의 개최 지역인 충남에서 신규 아너가 탄생하며, 아너 활성화 의미를 더했다. 이들에 걸쳐 진행된 아너 대표회의는 아동 양육 시설인 새감마을을 방문해 아동 자립 지원 사업비를 전달하며 마무리했다. ♡

1 아너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회의 모습  
2 아동양육시설인 새감마을을 방문해 아동자립지원 사업비를 전달한 아너 회원 대표들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아너 대표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 덕분에 앞으로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모금 활동이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너 대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너 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최신원 아너 총대표



## 기쁘고 행복한 날 나눔으로 축하해요!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특별한 날을 맞아 기부를 실천하며 두 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입사1주년맞아 나눔리더가입한 류경선 씨

지난 5월 15일 사랑의열매 중앙회 커뮤니케이션본부 소속 류경선 씨가 입사 1주년을 기념해 어머니 이수진 씨와 함께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산 사랑의열매에 200만 원을 기부한 것. 성금 200만 원은 류경선 씨가 대기업 퇴사 후 재취업 준비 기간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1년 근속한 후 지원받은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사비 50만 원을 더해 마련했다. 이 같은 나눔 실천 배경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나눔리더에 가입했고, 어머니 이수진 씨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류경선 씨는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기부를 이어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나눔리더에 가입한 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눔은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나눔리더 류경선 씨

###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윤선 학생

구미 상모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선 학생이 지난 5월 15일 구미시에 성금 76만 원을 기탁했다. 4월 16일에 방영된 KBS <전국노래자랑> '구미시' 편에 출연해 인기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한 것. 이윤선 학생은 “인기상 수상만으로도 영광인데, 상금까지 받아 더없이 기쁘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곱 살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온 터라 인기상 상금을 받자마자



나눔을 떠올렸다고. 이번 성금은 경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위기 아동 중 예체능 학습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 결혼 축의금으로 이웃사랑 실천한 채병관·채정균 형제



지난 5월 18일 군장종합건설 채병관 상무와 현대동군산종합서비스 채정균 실장이 각각 250만 원, 5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결혼하며 축의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뜻을 모아 기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달식에서 형제는 “앞으로도 정기 기부와 후원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탁한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아동 양육 시설인 삼성애육원과 구세군군산후생원에 냉난방비 지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서울 사랑의열매 제11대 김재록 회장

#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나눔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이 서울 사랑의열매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김재록 회장은 서울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 서울 사랑의열매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로 3년 임기의 시작을 열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자 (주)청구건축사무소 대표이사이며, 2020년부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먼저 취임 소감 부탁드립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전국 18개 지회 중 유일하게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모금과 배분이 이루어지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회장직에 임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 서울 사랑의열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계획인가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기부자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사랑의열매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부자, 복지 기관, 서울시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부자와 시민을 만나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서울 사랑의열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잇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경험을 새로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희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눔지역아동센터를 지키기 위한 펀딩을 시작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나눔지역아동센터 월세 지원 사업 “저에게 이곳은 제2의 집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눔지역아동센터에서는 17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생활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공부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터라 곳곳이 낡아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겨울에는 배관이 동파돼 센터장님이 사비를 들여 누수 공사와 도배를 했습니다. 센터가 어느 정도 복구된 기쁨도 잠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속적인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모금 기간  
4월 19일~8월 20일

목표 금액  
360만 원

모금 사용  
나눔지역아동센터 월세 지원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국내 최대 유선통신 플랫폼 (주)백메가

## 나눔과 사람 중심 경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갑니다

대구 2호 나눔명문기업 (주)백메가는 가정용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소개하는 전문 컨설팅 중개업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경영 철학을 모토로 가장 합리적 통신 서비스를 추천하며 "통신비 절감의 길라잡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사람과 나눔 중심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가는 기업이다. 글강보라 사진(주)백메가



고객 사랑과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밝힌 신정권 대표이사 모습(가운데)

2008년 대구에서 설립한 (주)백메가는 매년 153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유선통신 플랫폼이다. 연 매출 606억 원(2022년 기준)을 달성하며 지역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에서 손꼽히는 업체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의 비결에는 '사람 중심' 경영이 있다. 내 편에서 이익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처럼,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한 발짝 뒤로하고 고객 입장에서 상품 설계에 임했기 때문이다. 거대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의 등직한 중개자로 최적의 요금을 찾아줄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인터넷 상품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을 위한 진정한 '진심 경영'이다. 이런 사람 중심 철학은 나눔 실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 정도(正道)를 걷은 대구 2호 나눔명문기업 백메가

백메가의 성장이 의미 있는 것은 고객 중심 원칙에서 벗어난 길을 지양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을 늘리기 위한 낚시성 금액 광고,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가입을 유도하는 아웃바운드 콜, 스팸 전화와 문자 및 메일 등이 아닌 유쾌하고 기발한 콘텐츠를 활용한 백메가만의 사이트 홍보와 라디오·키워드 광고, 커뮤니티·블로그·웹 문서 마케팅으로 어필했다. 유선통신 분야는 복잡한 요금, 난해한 규정, 이상한 결합 제도, 상습적 약관 개정이 버무려져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영역이다. 이곳에서 백메가의 임직원은 통신 상품을 유통하고, 직접 유치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같은 백메가의 노력은 회사의 성장으로 입증되었고, 임직원은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고객 사랑에 화답했다.

백메가의 신정권 대표이사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님의 신뢰와 사랑 덕분이었다"며 "좋은 실적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명문기업 가입은 회사 임원들의 급여를 자진 삭감한 후 진행되는 뜻깊은 기부로, 특정 수혜자 또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일반 기부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지원이 절실하면서도 지정 기부금을 받기 힘든 알려지지 않은 복지시설에 각종 공모 방식을 통한 지원금으로 사용해 더욱 의미를 더한다.

### 진심 경영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다

유선통신 상품은 3년의 약정 기간이 지나면 통신사 변경에 따라 큰 혜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잘못된 정보와 업체의 난립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백메가는 이런 경우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돈이나 상품을 더 주는 회사를 찾아 헤매다가 백메가에 전화하면 최적의 모범 답안을 발견한 기분"이라는 후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백메가가 남다른 지점은 사후 서비스로 도의적 책임까지 다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가입 후 3개월·6개월·1년·3년 등 일정 주기를 두고 인터넷 사용 중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해소해주는 등 각종 사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두꺼운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신뢰가 15%의 높은 재가입률로 이어졌다. 백메가는 더욱 발전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과 전산팀을 운영하는 등 개인 정보와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이윤을 넘어선 진심 경영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 백메가만의 철학으로 나눔 문법을 바꾸다

백메가만의 나눔 문법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가치가 고객뿐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 내 작은 편의점을 옮겨놓은 듯한 장소를 마련해 각종 마실 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사내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카페 공간과 안마 의자 등 시설 투자 역시 아끼지 않는다. 급여도 현재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전략 개발, 마케팅 채널 발굴 등을 도모하며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공헌 분야에서도 백메가만의 독특한 철학을 고수한다. 연탄 봉사나 급식 봉사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주말을 반납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있는 직장이거나 사업가라면 그 시간에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서 고용과 납세액을 늘리고,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 수익으로 기부하고, 기부액이 고용에도 도움이 되며,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사업 관계자들의 수익에도 일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쁨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긴다. 백메가만의 톡톡 튀는 사회 공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나눔의 철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밝고 환하게 빛날 것이다.

백메가의 원동력은 사람이다. 열정적인 백메가의 임직원이 있었기에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주)백메가 신정권 대표이사

## “나눔으로 세상의 쓸모를 더합니다”



### 나눔명문기업의 가입 계기가 궁금합니다.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인 세이노\* 스승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동경하는 스타였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이분처럼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죠. 이후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그다짐을 실천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필명 세이노(Say No)로 활동하는 1,000억 원대 자산가다. 부와 성공에 대한 글을 모아 <세이노의 가르침>을 출간했으며, 사랑의열매에도 20억 원 이상 기부하며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기부를 실천하면 그 금액만큼 임차료를 할인해주는 등 본인만의 기부 철학을 전파하며 실천하는 인물이다.

### 나눔 기관 중에서 사랑의열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년 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비를 쓰는 곳이며, 예산집행이 투명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관리 운영비가 평균 15% 이상이고, 그보다 훨씬 높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랑의열매는 규모의 경제로 기부금 수혜

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부처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히 일반 기탁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고찰이 담긴 도서 <착한 기부, 나쁜 기부>를 읽고, 지정 기탁은 특정 수혜 계층에 기부금이 과다하게 모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일반 기탁이 늘어나야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예산 집행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값지게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나눔명문기업 가입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함께한 임직원 덕분에 백메가가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자이고 법인의 대표라 인터뷰를 하지만, 법인 기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백메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 100년뒤에도 초록별 지구로 남아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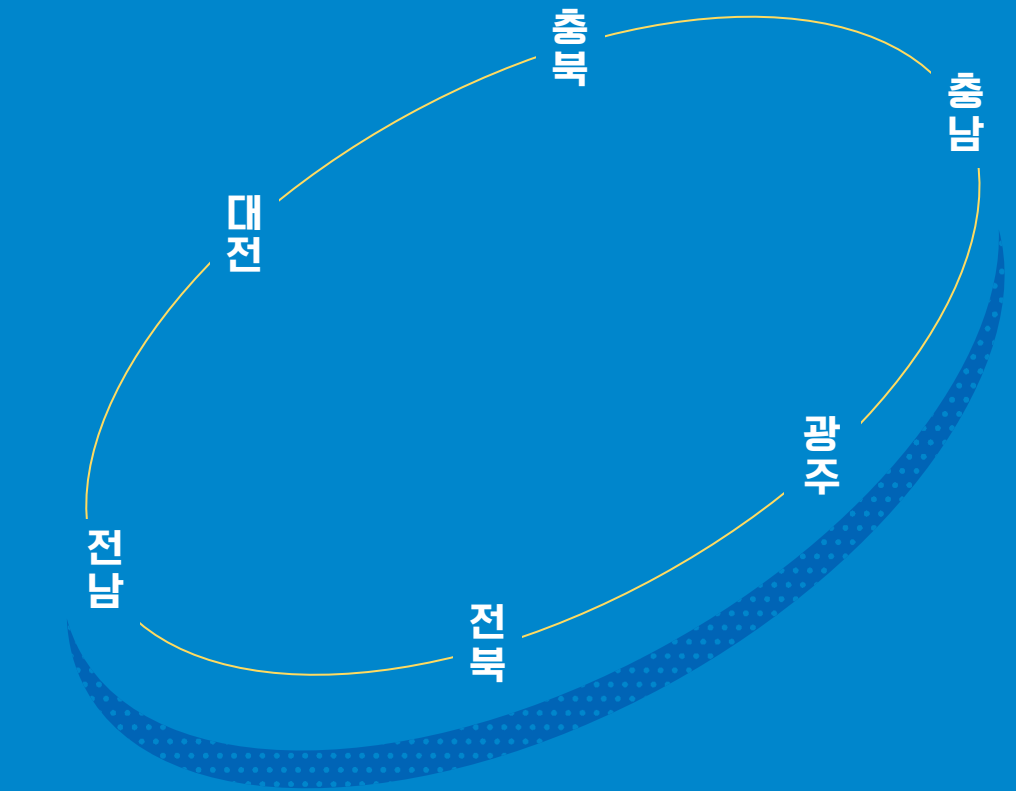
올여름 기상이보가 심상치 않다. 극한 폭염, 최악의 물 폭탄 등 무시무시한 단어로 점철되고 있다. 이 같은 말들을 이제 흘려들 수 없는 건 그만큼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흔히 지구를 초록 별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초록 별은 이제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 2023년 1호 나눔명문기업 포문 연 동건종합건설(주) 지역사회를 위한 강한 사명감으로

음으로 양으로 지역사회를 도왔다. 지역을 대표하는 나눔 실천 기업,  
동건종합건설(주) 이야기다. 글강은진 사진대전사랑의열매



동건종합건설(주)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기념사진

“동건종합건설(주)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이하 모든 협력 업체가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동건종합건설(주) 이흥재 대표이사



### 나눔리더에서 나눔명문기업까지

2023년 대전 사랑의열매의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동건종합건설(주)(대표이사 이흥재)다. 올해 1월, 가입식을 진행한 동건종합건설(주)는 2023년 1호 가입 기업이자 대전 사랑의열매 열여섯 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건종합건설(주)와 대전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광역시 3대 명예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동건종합건설(주) 이흥재 대표이사가 대전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개한 나눔리더 기부 릴레이에 개인적으로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나눔의 인연은 동건종합건설(주)의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기부와 2023년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이어졌다.

### 내실 있는 나눔으로 유명

동건종합건설(주)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 실천으로 신망이 두텁다. 특히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수리와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모두 이흥재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보수 공사 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12년 동안 대전지방보훈청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함께

총 14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2가구를 추가 보수할 예정이다. 또 2012년에 이흥재 대표이사가 사비를 출자해 설립한 귀흥장학재단을 통해 농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중구 뿌리공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무료로 설치하는 등 내실 있는 나눔을 펼쳐왔다.

### 사회 위해 최선을 다할 것

1991년 창립한 이래 여러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해 동건종합건설(주)는 대전의 대표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빌라나 원룸을 건설하는 작은 건설사였으나, 2003년 변동 동건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참좋은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국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는 이흥재 대표이사의 사명감은 업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 이흥재 대표이사는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 협력해 품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저를 비롯해 임직원 이하 모든 협력 업체도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동건종합건설(주) 이흥재 대표이사(오른쪽)는 2019년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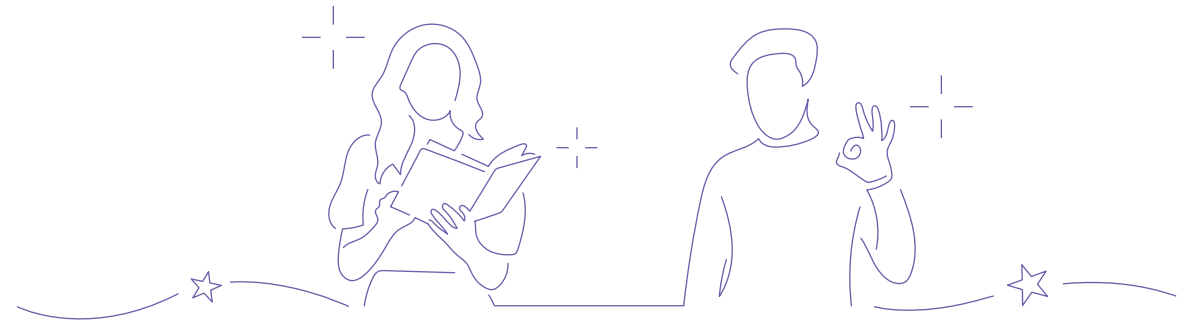


## 따봉 꿈끼쟁이 프로젝트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할게”

봉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충주시 연합 모금의 배분 특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따봉 꿈끼쟁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충북 사랑의열매



2018년부터 따봉 꿈끼쟁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봉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프로젝트명 따봉 꿈끼쟁이는 ‘따뜻한 봉방동 꿈끼쟁이’라는 뜻으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해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따봉 꿈끼쟁이 프로젝트는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인재 양성 사업이다.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꿈을 이루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돕는다. 기금은 봉방천사 정기 기부와 충북 사랑의열매에 모인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공개 모집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등을 지원한다.



봉방천사 정기 기부와 충북 사랑의열매에 모인 기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

### 희망을 품고 꿈을 찾길 바라며

2018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21명의 청소년에게 약 6,58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6기 꿈끼쟁이 대상자를 선발해 현재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난 6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K 학생은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학원 수강료를 낼 형편이 못 돼 고민이었는데, 꿈끼쟁이를 통해 학원비를 지원받았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K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던 국가직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고, 봉방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꿈끼쟁이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왔다. 이 외에도 국립대 수시 전형 합격 등 꿈끼쟁이들의 꿈을 찾는 여정은 순항 중이다. 또한 봉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오랫동안 함께할 예정이다. ❀

“따봉 꿈끼쟁이 지원이 없었다면 학업 성적을 올리는 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원해주신 덕분에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4기 꿈끼쟁이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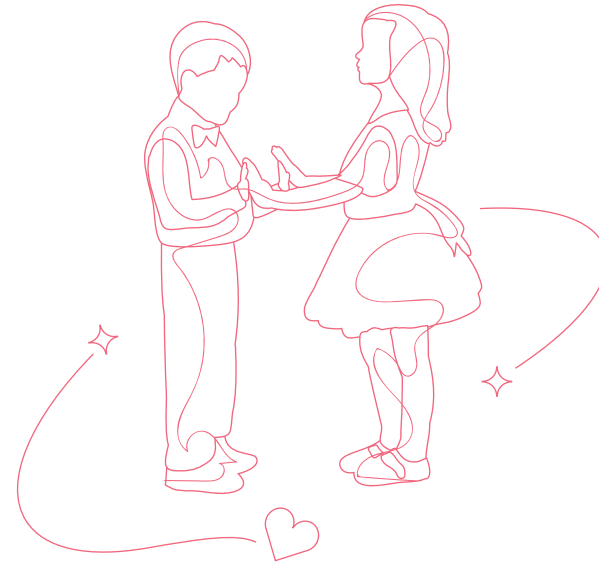
## 친구 사랑 동전 모으기 캠페인 “고사리손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친구 사랑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나누는 기쁨을 알려주고자 기획했다.

글 이선희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천안사랑기부데이 전달식에서 자신의 나눔 저금통을 들고 있는 청당예술어린이집 아이들



### 어릴 때부터 배우는 나눔의 기쁨

지난 5월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청당예술어린이집에서 충남 사랑의열매에 300여 개 나눔 저금통을 전달했다. 이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고자 충남 사랑의열매와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청당예술어린이집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나눔 실천 캠페인의 결실이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나눔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해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의 의미를 알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들도 나눔 저금통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역시 바자회를 열어 팝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며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함께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청당예술어린이집의 나눔 저금통 전달식은 ‘천안사랑기부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라 특별함을 더했다. 4월 한 달 동안 원생들과 교직원, 학부모까지 모두의 정성 어린 마음을 모은 300여 개



친구 사랑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충남 사랑의열매, 청당예술어린이집이 함께 기획했다.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나눔봉사단원

나눔 저금통을 나눔봉사단원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나눔 저금통은 천안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눔봉사단은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효도 행사도 펼쳤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홀몸 어르신 가정 5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카네이션은 물론 김치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발로 뛰는 봉사 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천안시 내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 청당예술어린이집 심현옥 원장



###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상기업(주)

## “나누면 행복합니다”

깨끗한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 정상기업(주)다. 글 강은진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자립 지원금 사업 외에 아동 양육 시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아끼지 않는 정상기업(주). 사진은 2023년 5월 어린이날 기념 선물 전달식

“앞으로도 정상기업(주)는 지역사회의 모든 이웃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상기업(주) 이정오 대표

### 기업 나눔의 모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바로 정상기업(주)(대표이사 이정오)다. '깨끗한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며, 2007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아동 양육 시설의 아동을 후원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2020년 정상기업(주)는 광주 사랑의열매,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자립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10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다. 현재 100명의 아동에게 매달 5만 원씩 아동 명의로 적립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 시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퇴소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이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

정상기업(주)는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17개소 아동 양육 시설 400여 명의 아이에게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자립금 지원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화순에 위치한 직업



정상기업(주)와 키즈라라 및 광주 사랑의열매가 함께한 어린이날 기념 직업 체험 지원 이벤트

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와 손잡고 입장권과 증식 등을 제공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했다. 그뿐 아니라 임직원들 역시 광주광역시의 아동 양육 시설을 찾아 매달 간식 만들기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봉사 횟수만 66여 회에 달한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지역사회를 위한 끝없는 헌신

광주 사랑의열매 6호 나눔명문기업이기도 한 정상기업(주)의 나눔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먼저 2020년 6월 착한일터에 가입하고, 동 단위 연합 모금은 물론 희망나눔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기부에 동참해오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돌봄 이웃을 위해 쌀·김치·연탄 등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2009년부터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한 누적 기부액만 2억 2,000여만 원(현금, 현물 포함)에 달한다.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상기업(주)의 나눔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상기업(주)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중견 건설 기업으로 다양한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매달 시설 아동들을 위해 간식 만들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상기업(주) 임직원





## 어린이와 작가들,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예술 작품으로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지난 5월 6일 '예술로 놀자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됐다.  
전주 지역 어린이 작가들과 미술관 작가들이 직접 창작한 예술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글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플리마켓이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했다.



오감로니 미술관은 예술로 놀자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 나이 불문, 예술로 소통하며 기부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오감로니 미술관은 어린이와 가족, 어른 등이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 및 문화 예술을 기획하고, 체험 교육을 통해 아동부터 어른까지 예술을 폭넓게 공감하고 향유하도록 활동하는 어린이 미술관이다. 오감로니 미술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계층에 사랑을 전하며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예술로 놀자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또 프로 작가뿐 아니라 어린이도 작가로 플리마켓에 참여해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예술로 소통하며 기부까지 이어지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 나눔 온기를 담은 따뜻한 작품들

이번 플리마켓은 5월 6일에 진행됐다. 내내 비가 와서 야외 정원 부스는 출입이 제한되고, 오감로니 미술관 내부에서만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연 부스, 솜사탕 만들기, 목판화 프린팅 등 다양한 체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했다. 무엇보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작가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후문. 어린이들은 어엿한 작가로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 오감로니 소속 작가들은 예술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경험을 했다. 또한 플리마켓을 방문한 시민들은 함께 만드는 예술 문화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등 모든 이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누적된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은 모두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으며, 전북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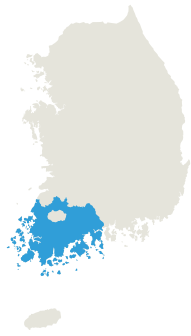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 작가들이 성장기에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를 돕는 삶이 더욱 의미 있다는 걸 느끼며 각자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틔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린이 작가들과 미술관 작가들의 작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 오감로니 미술관 최윤영 관장



자신이 만든 가면 작품을 설명하는 어린이 작가





## 무안군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제이개발 양승길 회장과 이정임 여사 “부부가 함께 나눔에 동참해 더 뜻깊어요!”

오랫동안 고향 사랑을 실천해온 제이개발 양승길 회장 부부!  
이번엔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글 강은진 사진 전남사랑의열매



2023년 5월, 무안군청에서 진행한 제이개발 양승길 회장과 이정임 여사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아내와 함께 고향 무안을 도울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었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고향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 제이개발 양승길 회장



양승길 회장 부부의 기부금으로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이동 복지 서비스 차량, 경차 2대를 지원했다.

### 무안군 최초 부부 아너

무안군에서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제이개발 양승길 회장과 아내 이정임 여사다.  
지난 5월 9일, 무안군청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양승길  
회장 부부와 함께 김산 무안군수,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허영호 대표,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극 사무처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희 원장,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나민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안군 현경면이 고향인  
양승길 회장은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부부는 무안군 3호와 4호, 전남 141호와 14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 진심 다하는 고향 돕기

지역사회를 위한 부부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양승길 회장과 이정임 여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아니라 이들 부부는 무안군으로부터 성금 전달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150만 원 상당의 쌀을 다시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해  
재기부하며 고향 돕기에 진심을 다했다.  
이정임 여사는 지난 5월 5일 무안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을 기탁한 6인에 선발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남편과 함께 무안을 자주 방문하고 이웃  
주민들과 정을 나누다 보니 이제 무안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면서 무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 부부의 선한 영향력

양승길 회장과 이정임 여사가 전달한 기부금 2억 원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이동 복지  
서비스 차량으로 경차 2대를 지원했으며, 남은 성금은  
무안군 돌봄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가입식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양승길 회장님과 이정임  
여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무안군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허영호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을 전해주시신 신규 아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다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인사했다. 🍀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135호(중앙 373)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국 3136호(울산 117호)



천성관 (주)인터맥 대표이사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 김영숙 러브패리스 대표    광주 이근신 엔에이치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최윤수 (주)동양ECO 대표이사

경기 송인만 양주바이오텍 대표    전남 이정임

전국 3137호(울산 118호)



김익기 대우여객(주)·우리버스(주) 대표이사

“사랑과 감사의 나눔, 겸손과 따뜻한 배려.  
나눔은 나에게 작은 일이지만,  
남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3142호(전남 141호)



양승길 제이개발(주) 회장

“부부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 3146호(세종 26호)



전성미 (주)도광 대표이사

“나눔은 우리를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전국 3149호(서울 382호)



박소영 우암빌딩 공동대표

“나눔은 즐거운 실천입니다.”

전국 3152호(광주 157호)



허성 한양레미콘(주) 대표이사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해 환원하는 것은 기업가의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3156호(서울 383호)



송두진 디케이락 대표

“나눔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전국 3158호(서울 384호)



이정운 밸런스에셋주식회사 대표

“나눔은 공감입니다♡”



중앙회

신한은행, 300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사랑의열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연간 3만 명에 육박한다.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자책감과 우울증 등 정서적 고통을 수반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에 신한금융그룹 그룹사인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이웃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약 6,0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보험 상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옥동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되고, 피해자에게 희망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약 6,0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보험 상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옥동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되고, 피해자에게 희망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13년간 300억 원 나눔

SK하이닉스(대표이사 박정호, 궤노정) 임직원들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행복나눔기금' 성금이 300억 원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1년부터 임직원들이 기부한 만큼 회사가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의 행복나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만여 명의 직원이 착한일터에 동참해왔으며, 13년간 꾸준한 참여로 누적 성금 300억 원을 달성했다. 성금은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보급 지원 사업 '행복GPS'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하인슈타인' ●홀몸 어르신 정서 지원 및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지원 사업 '실버프렌드' ●결식 우려 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 등에 사용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은 "SK하이닉스는 행복나눔기금 외에도 구성원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미래 인재들이 반도체에 호기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더 많은 지역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회복지사 전안나 작가, 나눔리더 가입



(주)책글사람 대표 전안나 작가가 2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 서울 157호로 가입했다. 전안나 작가는 20년 동안 사회복지사 실무자로 활동하다가 책과 글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1일 1책 읽기를 실천하며 <천 권 독서법>을 집필하는 등 책 및 글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작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천연기업,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



석공사 전문 기업 (주)천연기업(회장 심광부)이 1억 원을 기탁하며 나눔명문기업 서울 57호로 이름을 올렸다. 성금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심광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주)세정 박순호 회장과 임원진 11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 기업 (주)세정의 박순호 회장과 임원진 11명이 1인당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다. 아너 회원인 박순호 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가입해 뜻깊고 의미 있다"며 "(주)세정의 작은 나눔이 부산 지역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다움코퍼레이션, 지역아동센터에 학생화기탁



병행 수입 온라인 쇼핑몰 (주)다움코퍼레이션(대표 서혁준)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생화 1,843켤레를 기탁했다. 1억 570여만 원 상당의 신발은 부산의 지역아동센터 200여 곳에 전달되었다. 서혁준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화를 선물하게 돼 더욱 기쁘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대성에너지(주),  
대구 12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에너지 공급업체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윤홍식)가 2년간 2억 3,0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대성에너지(주)는 2021년 홀몸 어르신을 위해 8,000만 원, 2022년 보호 종료 청소년과 에너지 취약 계층 복지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또 매년 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곽점호 대표와 외손녀 정이지,  
가정의달 맞아 이웃사랑 실천



송해와오리백숙 율하점 곽점호 대표와 외손녀 정이지 어린이(대구삼육초 3)가 함께 나눔을 실천했다. 곽점호 대표는 착한가계와 착한일터 등 정기 기부를 이어오다 100만 원을 추가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매년 용돈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정이지 양은 이번에도 1년간 모은 용돈 57만 6,000원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광주

가뭄 극복  
생수 나눔 전달식



광주MBC가 주관한 '광주 전남 식수난 극복 생수 100만 병 나눔캠페인'에 세운철강, 선보공업(주), 은산해운항공(주), 송우산업(주), 동일철강(주), (주)대원플러스건설, Korens, 파나시아, (주)대한이엔지, 금상건설 등 부산 지역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이 기부한 생수 500ml 10만 병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광주 지역 취약 계층에 전달했다.

기아오트랜드광주 밀알봉사회,  
장애인 희망나눔 바자회 개최



기아오트랜드광주 밀알봉사회가 장애인 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장애인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현장에서 기아오트랜드와 밀알봉사회가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으며, 여기에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더해 마련한 성금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전액 사용했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5월의 산타 봉사 활동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김의식) 회원들이 어린이 날을 맞아 5월의 산타로 변신했다. 신명보육원을 찾은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마카롱을 만들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회원들이 따로 전달한 성금 500만 원은 보육원 아이들의 선물 및 축구용품 구매에 사용했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  
전달식 개최



인천 사랑의열매가 지난 5월 4일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규모가 작고 사업 수행 인력 및 외부 지원이 부족한 복지 기관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했다. 총 59개소 기관에 지원한 2억 4,911만 5,550원은 기관의 장비 보강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보수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

자연내림 호관원(주),  
관절건강기능식품 기탁



자연내림 호관원(주)(대표 이진술)가 어버이날을 맞아 3억 원 상당의 관절 건강식품 '호관원 프리미엄'을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대전시 관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자연내림 호관원(주)는 2022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고, 2023년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이진술 대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쌀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김양수)가 백미 100포를 전달했다. 창립 기념 총회 당시 회원사들이 보낸 백미 화환의 쌀을 모아 노숙인 복지시설에 전달한 것. 김양수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하는 회원들 덕분에 귀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산시·KCC, 울산색 활용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



울산시가 KCC와 '울산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색은 울산의 역사와 환경 등 색채 특성을 담은 58가지 색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시는 울산색을 활용해 건축물과 외벽 재도색에 필요한 색채 디자인을 개발하고, KCC는 품질 인증 도료를 지원한다. 울산 사랑의열매는 건물 도색이 필요한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롯데삼동복지재단, 어린이날 선물세트 지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82개소에 선물 세트를 지원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선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린이 유산균을 포함한 과자 세트 2,123개를 선물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들이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선물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북부

양출이·박성대 부부, 파주시 2호 부부아너 가입



나눔명문기업 상도일렉트릭(주)의 양출이 감사가 파주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양출이 아너는 2020년 파주 9호 아너로 가입한 남편 상도일렉트릭(주) 박성대 회장과 함께 파주시 2호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양출이 아너의 성금 1억 원은 파주시 거주 월남전 참전용사 등 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원광산전(주) 유형근 부장, 나눔리더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원광산전(주)대표 김창겸, 서동욱)에 15년째 근무 중인 유형근 부장이 성과급의 일부를 기탁하며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그는 5월 1일 회사 창립일을 기념해 회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했으며, "회사에서 받은 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경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따뜻한동행 경기119 동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여성 회장 엄수현)가 '따뜻한 동행 경기119' 업무 협약을 맺었다. 매일 119원을 기부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재난 피해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경기도 소방대원의 성금은 경기 지역 재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가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23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제2대 회장을 맞이했으며, 취임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기부금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다. 새로 취임한 장경임 회장은 "축하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덕분에 나눔에도 참여하게 돼 기쁨이 두 배가 됐다"고 말했다.

강원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 개최



강원 사랑의열매가 지난 5월 9일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종태 강원 지역대표, 길광준 춘천권역 대표, 이상욱 강릉권역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태 지역대표는 "앞으로도 아너 회원들과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 직원 3명,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기부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일) 소방행정과 직원 3명(소방령 이강우, 소방장 홍용기, 소방교 김형준)이 강원사랑상품권 300만 원을 기탁했다. 상품권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충북

동일유리(주) 김영진 회장, 청주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아너 회원인 동일유리(주) 김영진 회장이 청주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와 재능을 보이는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했다. 김영진 회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파코 주식회사, 1,400여만 원 상당 생활용품 기탁



리파코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기석, 김준태)가 1,404만 7,14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 전달받은 생활용품은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 리파코 주식회사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주)휴비스 전주공장,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고성욱)이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119 안심하우스’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119안심하우스는 전북 도내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으로 취약 계층의 화재 피해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다. 고성욱 공장장은 “화재 피해 이웃이 일상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용진읍 착한가게 17개소 단체 가입으로 4300호 돌파



완주군 용진읍 착한가게 17개소 단체 가입으로 전북 착한가게가 4300호를 돌파했다. 착한가게에 동참한 곳은 옐로우팜, 돈삼냉면투스토리, COFFEE콩, 완주1113, 향뚝짬뽕, 용진반점, 정일품, 완주IC주유소, 디자인만세, 끝내네사랑방, 덕천식당, 원창주식회사, 중앙식물원, 코다리밥상, (유)초포, (유)가나안셔터, 풍경마당 등 17개소다.

충남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이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도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모금해 총 4,658만 2,300원을 기탁했다. 최정희 노조위원장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성금이 모여야 한다”며 성금 모금에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NH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한국농협김치 300세트 나눔



NH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가 가정의 달을 맞아 1,500만 원 상당의 한국농협김치 300세트를 전달했다. 올해 1억 2,000만 원 상당 농특산물 꾸러미 2,000박스를 기탁한 데 이어 한국농협김치 출시 1주년을 맞아 나눔을 실천했다. 김치는 좋은씨앗공동체무료급식소, 한줄두줄나눔봉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전남

김영록 전남도지사·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나눔리더 가입



전남 사랑의열매가 ‘전남을 이끄는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복지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서동욱 의장은 “살기 좋은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숙 부띠끄, 어버이날 맞아 여성 의류 기탁



김창숙 부띠끄(회장 하봉화)가 어버이날을 맞아 1억 5,629만 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기탁했다. 여성 의류 2,720 점은 전남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전남 지역 내 취약 가구 여성에게 전달했다. 김창숙 부띠끄 최성열 총괄이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경북

고령군 신규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경북 사랑의열매가 고령군 신규 착한가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천지천우한우전문점, 카페16, 영진통닭, 영남종합철물, 소풍가, 샐러리아, 풍텐블루, 딸콤농장, 가야약국, 우도, 반주한상, 진가희복국, 육감만족, 한식명가 가야금, 대성모터스, 진성건업, 베네치아, 동고령숯불구이 이상 18개소가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사)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500만 원 기부하며 연합모금 동참



(사)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회장 양재경)가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을 위한 연합모금'에 첫 번째로 참여해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합모금은 경북 도내 경로당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배분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6월 두 달간 진행된다.

제주

제12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 모금 실시



제주 사랑의열매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2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제주MBC와 제민일보사, 김만덕 재단과 협약도 체결했다. 제주농협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에서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재일 교포로 구성된 재일신촌친목회에서 10만 엔을 기탁하는 등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월종 화백,  
어린이날 기념 성금 1,000만 원 기부



이월종 화백이 제주 사랑의열매에 어린이 돕기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월종 화백이 전시 수익금을 기탁했으며, 제주도 내 아동 양육 시설 2개소에 전달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이월종 화백은 2022년에도 서귀포 지역 아이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경남

첫돌 맞은 표강우군,  
나눔리더 가입하며 생애 첫 기부



표승우·장원정 부부의 장남 표강우 군이 5월 21일 첫 생일을 맞아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부부는 자녀의 생일에 의미 있는 선물과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돌잔치를 여는 대신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고 나눔을 실천한 것. 사천지역자활센터 팀장인 표승우 씨는 "아들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아동양육 시설 찾아 봉사 활동 전개



경남 아너 회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용호동에 위치한 손바람문화센터에서 쿠키를 만들고 포장해 아동 양육 시설 동보원에 전달한 것. 경남 아너 클럽은 2010년 창단한 후 기부와 봉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웃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세종

(주)도광 전성미 대표이사,  
세종 아너 26호 회원 가입



조경 식재 전문 기업 (주)도광 전성미 대표이사가 세종 아너 2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 가입 이전부터 나눔리더와 착한기업에 가입하고, 세종시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에 앞장선 전성미 대표이사는 (사)세종여성기업인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눔으로써 더 배우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이어뱅크(주),  
나눔명문기업 정회원 등극



타이어 유통 전문 업체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1억 원 기부금을 완납하며 세종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등극했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타이어뱅크(주)를 방문해 김정규 회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타이어뱅크(주)는 2022년 1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이불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기탁하고,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5,000만 원을 기탁했다.





4화

#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